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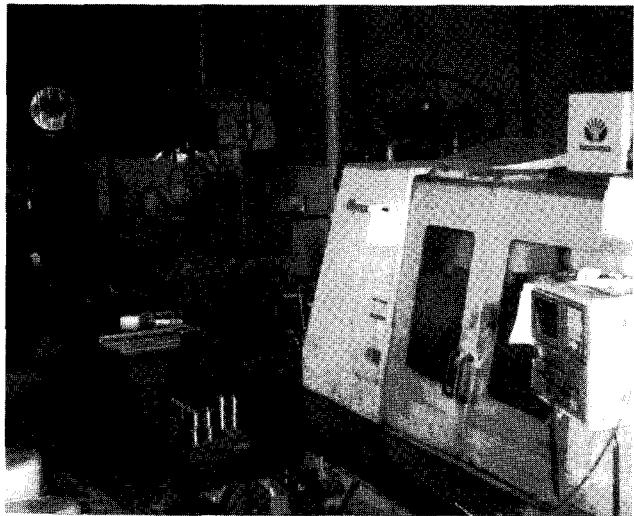
품질우선주의 경영, 국내 포장기계 위상 제고 수출 경쟁력 높여 시장 개척할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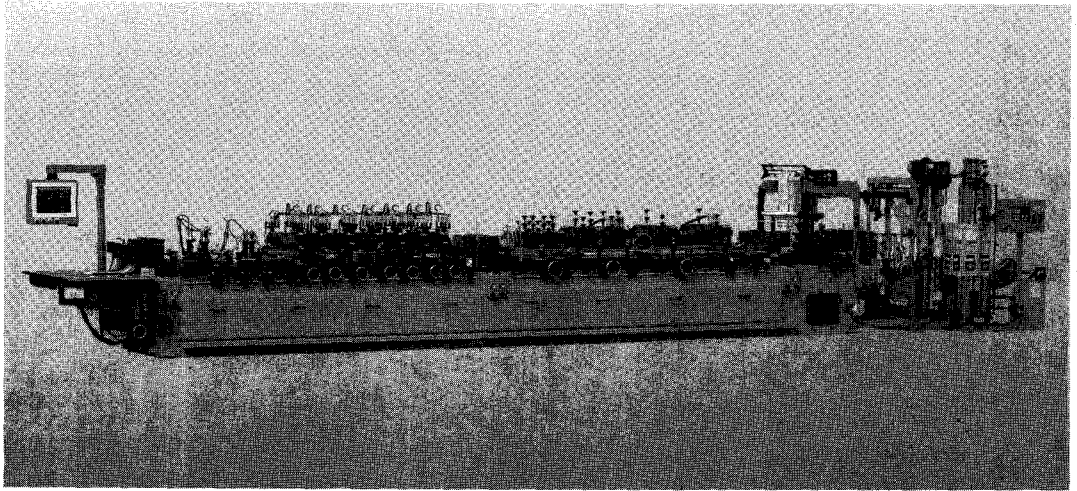
두 장 환
두산전자기기 대표

포장산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포장기계업계 역시 영세했던 초창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지난 1994년 한국포장기계협회가 발족되면서 포장기계업계는 국내 업체간의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세계 무대로의 진출을 꾀하기 위해 중국, 인도 등의 동남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는 등 자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 팽배하고 있는 업계간 과당경쟁은 포장기계 시장에서의 마케팅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으며 타사의 기술과 노하우를 모방하여 같은 사양의 기계가 제작, 판매되는 등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점들



▲ 두산전자기기 보유설비



▲ 두산전자기기의 Bay Making Machine

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달 5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KOREA PACK 2003에서 국내 포장기계 업체로는 최초로 4줄짜리 스탠딩 파우치 기계를 선보인 두산전자기기(대표 두장환)를 찾았다.

지난 1986년 구로동 공구상가5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창립된 두산전자기기는 초기, 기계 차체와는 전혀 무관한 섬유, 화학, 연포장에 사용되는 부품 제작 업체였다.

지금의 경기도 부천시에 자리잡게 되면서 1997년 15억을 투자해 백(bag) 기계를

개발, 두산전자기기는 비로소 국내 포장기계 산업의 대열에 서게 된다.

“국내 쉐어링기(sealing machine)가 낙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국내 최고의 쉐어링기 및 스탠딩 파우치 기계 업체로 거듭나고 싶었다”는 두장환 사장은 자산을 통털어

기계 산업에 뛰어들게 된다.

기계를 개발한지 5~6년 정도가 지난 현재, 스탠딩 파우치기, 지퍼실링기, 스파우트 인서트 머신 등을 비롯 15개 정도의 기계를 판매했다는 두산전자기기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으로 전 임직원이 노



◀ 두산전자기기의 Bag Marking Machine으로 제조된 파우치 제품

DooSan

력하고 있다.

현재 두산전자기기는 15명의 직원들이 내실을 꾀하며 두산의 발전을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특히 기계 설계에서부터 영업 업무까지 전담하고 있는 두 사장은 직원들보다 항상 발로 뛰고 더 많이 일하겠다는 창립초기의 각오를 되새기면서 선진국 대열에 두산

의 기계가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두산전자기기는 그동안 3서보 탑재 3면 쉘링 & 지퍼백 스탠딩 파우치 및 지퍼기계를 비롯해 3서보모터식 3면 쉘링 스탠딩 파우치기, 3서보 센타 쉘링 봉투(M가제트) 기계 등을 선보였다.

이중 3서보 센타 쉘링 봉투 기계는 센타 쉘링봉투(M가

제트 포함)만을 가공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발한 기계로 3개의 서보모터(2개는 원단이송용, 1개는 쉘링바상하작동용)와 윈도우 환경에 의한 컴퓨터 제어방식으로 쉘링온도 및 시간, 운전속도 증감, 봉투길이 설정과 조정이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두산의 모든 기계들은 모든 작업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저장 또는 재현할 수 있어 재작업시 시간과 제품의 불량률을 대폭 절감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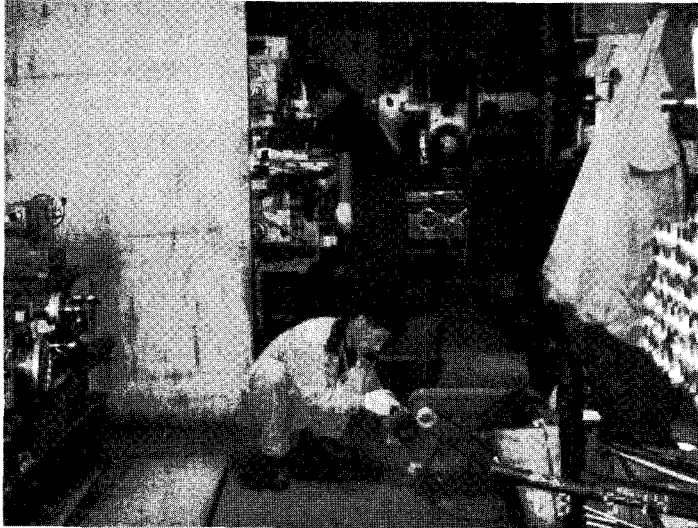
특히 이달 말 선보일 예정인 스파우트 캡 실링 머신은 기존에 분당 2~30개의 생산 속도에서 6~70개까지 생산 가능토록 업그레이드 했다.

두장환 사장은 납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기계를 개발하고 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주없이, 납기일에 쫓기지



▲ Korea Pack 2003에 선보인 4줄짜리 Bag Making Machine



▲ 두산전자기기 작업 전경

않고 기계를 정성들여 제작하는 것만이 품질우선주의의 기계를 개발의 핵심이라는 것.

지난 KOREA PACK 2003을 통해 두산이 선보인 4줄 생산이 가능한 스탠딩 파우치는 30분이내에 작업 전환을 통해 2줄 치어백 생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최신 모델로 국내 최초로 음성 인식 장치를 도입, 작업의 편리함을 추구했다.

두장환 사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프랑스 에이전트사로부터 일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자부하면서

포장기계업체를 꾸러가면서 외국 딜러들을 비롯한 고객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을 때만큼 보람된 순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장 사장은 국산 기계를 불신하는 국내 업체들의 현실을 바라볼때 가장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는 같은 품질의 기계를 평가하는데 있어 가격이 저렴함에도 국산이라는 이유로 품질을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오너(owner)들의 마인드 변화 없이는 국내 포장기계 업체가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과거에

비해 국내 포장업계도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외국업체들과의 경쟁대열에 다가서는 만큼 기업의 국내 포장기계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포장기계업계 중 특히 백(bag) 기계 업체가 난립되어 있는 것을 애로사항으로 꼽으면서 협업 체계를 구성해 경쟁력있는 업계로 해외 시장에 당당히 진출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끊임없이 진보하는 기술을 추구하며 "두산전자기기의 개발은 멈추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두장환 사장. 그는 선진 기계의 모방이라는 일각의 쓴소리도 단소리로 삼겨가며 앞으로 두산의 위상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신제품과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현대 사회, 두산전자기기가 하이 테크놀로지(High Technology) 시대에 발 맞추어 독창적이고 두산만의 독특한 색깔을 지닌 새로운 기계개발로 국내 포장기계 업체에 일익을 담당하길 기대 본다. ☺

박초혜 기자